

주간 환율 금리 표. 주가 +3.01, 환율 +4.10, 금리 +0.06. 코스닥지수 549.86, 코스피지수 1,295.11 등.

위스키 시장 '원저시대'

시장점유율 38.8%... 임페리얼 추월

위스키 시장에서 선두를 고수해온 진로발렌타인스(JBC)가 장 크리스토퍼 쿠티어(40) 사장이 취임한 올해 상반기에 부진한 실적을 내면서 경쟁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에 선두 자리를 빼앗겼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임페리얼' 브랜드의 진로발렌타인스는 작년 상반기, 하반기 판매량이 각각 45만8천849상자(500ml병)와 45만8천117상자로 거의 비슷했으나 올해 상반기 실적은 45만1천930상자로 떨어졌다.

쿠티어 사장은 모체이자 세계 2위 주류기업인 프랑스 페르노리카 오너인 페트릭 리카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아-태지역 재무 총괄 경영인 출신으로 2월 JBC 사장으로 왔다.

그러나 그는 취임 후 기대를 모았던 첫 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줄어 오히려 경쟁사에 선두 자리를 내주면서 페르노리카 그룹의 차세대 주자로서의 자존심을 구기게 됐다.

이에 비해 '원저' 브랜드의 디아지오는 2004년 11월 송 회장이 들어온 뒤 이듬해 판매량이 상반기 41만9천125상자에서 하반기 45만2천433상자까지 늘더니 올해 상반기에 46만381상자를 팔아 JBC를 추월했다.

송 회장의 현장 경영 등 토종화 전략에 힘입어 디아지오코리아와 J&B 판매법인인 수석무역에 포함된 디아지오 계열은 올해 상반기 위스키 시장에서 점유율 38.8%로 JBC를 포함한 페르노리카 계열(36.7%)을 2.1% 포인트차로 눌렀다.

10원짜리 동전이 90만원?

한은 동전교체 발표후 인터넷 경매 인기

올해 말 새 10원짜리 동전의 발행을 앞두고 현재의 10원짜리 동전이 인터넷경매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14일 인터넷중매 аук션(auction.co.kr)에 따르면 최근 10원짜리 동전의 매출 건수가 평소보다 9배 이상 많은 150여건으로 늘어났다.

10원 동전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한국은행이 새 10원 동전 발행 소식을 밝힌 이후로 특히 1970년 발행된 미사용 10원짜리 동전의 경우 액면가의 9만배인 90만원의 즉시 구매 가격으로 올라왔으며 입찰가도 이날 현재 30만원까지 올랐다.

이 동전은 구리 성분으로 인해 붉은 색을 띄어 '적동화'로 불리며 발행량이 다른 해보다 현저하게 적어 화폐수집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발행된 10원짜리 동전 500개가 액면가의 네 배인 2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1915년 일제 시대 조선은행에서 발행한 10원짜리 지폐는 희소성으로 인해 110만원의 입찰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육성은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새 10원짜리 동전 발행 이후에도 현재의 10원짜리 동전을 계속 사용하고 환수된 현 10원 동전도 사용이 가능한 것은 계속 유통시킬 계획이다.

수익과학검역원 출장소 소춘동 이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광주출장소(소장 김병조)는 14일 목포출장소를 통합하고 서구 농성동에서 광산구 소춘동으로 이전, 개소했다.

김병조 소장은 "나주지역 오리고기 수출업체, 유가공업체 등에 대한 신속한 고객지원과 향후 개장될 무안국제공항 국경검역에 대비해 효율적인 출장소 운영을 위해 통합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출장소는 광주시 전역과 전남도(여수·순천시, 고흥·보성·구례·곡성·장흥군 제외)를 대상으로 수출입 동·축산물에 대한 검역·검사, 축산식품 안전관리, 국경검역 및 가족방역업무를 지원한다. 문의 (062)945-0528.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보성 어성초, 수출 탄력 받았다



서두석 대표가 보성군 별교읍 보광영농법원에서 어성초 농축액을 생산하고 있다. /고정석기자 ksgo@kwangju.co.kr

올 4월 美 선적이어 내년 加·阿·뉴질랜드 진출

보성지역에서 나는 '신비의 약초' 어성초(魚腥草)로 만든 건장식품이 미주 지역에 수출되면서 세계에 이름을 날리고 있다. 보성 어성초는 올 4월 미국 FDA 승인을 받고 미주지역에 첫발을 내디딘 데 이어 내년 캐나다·아프리카·뉴질랜드 등에 수출을 앞두고 있다.

이같은 '어성초 열풍'은 35년여 동안 어성초 재배와 가공기술에 '미쳐온' 서 대표의 집념에서 비롯됐다. 78년 묵은 1천평을 빌려 어성초를 재배한 서 대표는 94년 국내 처음으로 농축액 추출에 성공한 이후 까다롭다던 이스라엘 유기농 품질인증증과 다류(茶類)와 리큐어 제조에 관한 국내특허를 획득했다.

한편 효과를 지니며, '쿠에르치트린'은 강력한 이뇨·감심작용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장균·티푸스균 등에 대한 항균작용과 진통·지혈작용이 뛰어나고 건조잎에는 백미의 2배에 달하는 단백질과 현미의 12배를 넘는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다.



▲어성초(魚腥草) =삼백초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다양한 휘발성분 함유하고 있어 고기 비린내같은 독특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이같은 이름 붙었다.

서 "농장 근처에 대규모 어성초 체험 타운을 조성, 어성초의 세계화를 위한 전진기지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보성=안구일기자 giahn@

삼성경제연구 마저 경기 비관 대열에

“환율·유가 부담...내년경기 더 어렵다”

그동안 정부와 민간연구소의 경기 논쟁에서 한발 물러나 신중함 태도를 보여온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공식적으로 '경기가 이미 꺾였다'는 판단을 내놓아 주목된다. 더구나 내년에는 세계경제 둔화와 이어지는 환율 및 유가 부담, 글로벌 유동성 축소 등으로 올해보다 경기가 더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곁들이고 있다.

4·4분기 1.6%를 기록한 이후 올해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1.2%, 0.8%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점, 계절조정 후 분기별 GDP 순환변동치 역시 지난 2·4분기에 기준치인 100 밑으로 떨어진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재고-출하 순환지표 역시 재고 증가속도가 빨라지며 경기 확장이 마무리 단계임을 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소 거시경제 전망을 지휘하는 홍순영 상무(경제동향실장)도 최근 이 같은 연구소의 시각을 분명히 드러냈다. 홍 상무는 지난달 말 임원급 대상 정보사이트 '세리CEO' 회원 초청 조찬세미나 강연에서 "괜찮은 경기지표를 강조하는 낙관론과 실패 지표 악화를 내세운 비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며 "그러나 재고-출하 순환도 등으로 미뤄 경기는 1·4분기를 고점으로 꺾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광주벤처기업 '인터세이브'

태국에 모바일 게임 공급

3억원 규모 독점계약

모바일게임 개발사 인터세이브(대표 이갑형·광주시 동구 벤처빌딩)가 지난 9일 태국 방콕의 게임소프트사인 세컨드소프트와 3억원 규모의 모바일게임 공급에 관한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세컨드소프트는 태국 제일의 모바일게임 개발회사로 태국에서는 처음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을 시작했으며, 태국 소프트웨어진흥협회(SIPA)로부터 최고상을 두 번이나 획득한 유명업체로 알려져 있다. 인터세이브는 자체 개발한 모바일 게임인 '산타 훈련소'와 '팍잡아'를 태국에 서비스하게 됐으며 세컨드소프트의 독보하고 수준 높은 게임을 국내에 독점공급하게 된다. 인터세이브 이갑형 대표는 "이번 계약은 싱가포르를 근거지로 세계 50여개국의 지사망을 확보, 기업간



게임유통을 활성화하고 있는 우월의 주신으로 이뤄졌다"면서 "앞으로 우월드는 물론 태국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세계적인 게임공급업체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공동주식하는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이자 5%대 정기예금 속속 등장

콜금리 인상 후 시중銀 신상품 경쟁

콜금리 인상 후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연리 5% 이상의 정기예금이 줄줄이 등장하고 있다. 주가지수연동예금과 함께 가입하는 패키징형 정기예금 금리는 연 6%대, 일반정기예금은 5%대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다. 14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주가지수연동

예금과 정기예금을 패키지로 묶어 파는 상품들은 정기예금 부분에 5%대 후반에서 6%대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패키징형 상품은 주가지수연동예금 가입금액까지만 가입 가능하다. 기업은행이 창립 45주년을 기념해 파는 패키지형 주가지수연동예금상품의 정기예금에는 6개월제 연 5.2%, 1년제

연 6.2%의 금리가 적용된다. 주가지수연동예금은 최고 연 9.83% 수익률을 기대해볼 수 있다. 단, 판매기간이 14일까지만이다. 한국씨티은행이 판매 중인 Dauzon 유로스톡스50 지수연동예금과 닷넷이 225 지수연동예금은 양도성 예금증서(CD)에 동시에 가입하면 연 6.0%, 정기예금에는 연 5.8% 금리가 적용된다. SC제일은행이 판매 중인 'Principal+ Best One 6호'는 정기예금 가입분의 금리가 연 5.5%다. 신한은행은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영업점장 전결금리를 콜금리 인상전보다 최고 0.5%포인트 인상 적용한다. /연합뉴스

경제활동 없는 재벌 3세 들 주식부자

24세이하 48명 4,351억 보유

한화·LG·GS그룹 다수 포진

비경제활동인구로 추정되는 30대 재벌의 3세들이 보유한 상장사 보유주식 가치가 4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부모에게서 주식이나 현금 상속·증여받거나 이미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수입과 담보대출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 3세, 100억원 이상 주식부자 15명=14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30대 그룹의 오너 집안 3세 가운데 1982년 이후(만 24세 이하)에 출생한 48명이 보유한 상장 계열회사 주식수는 1천484만주이며, 11일 종가 기준 평가금액은 4천351억원에 달했다. 심지어 보유지분의 가치가 100억원 이상인 이들도 15명이나 됐다.

30대 그룹 가운데는 한화와 LG·GS·LS그룹에 젊은 주식부자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LG·GS·LS그룹, 3세 주식부자 '출비'=GS그룹에서는 GS와 GS건설 주식을 고루 보유하고 있는 허치홍(23)·두홍(24)·주홍(23)·태홍(21)씨 등 출자

■보유주식 100억이상 재벌 3세 (단위:백만원)

Table with columns: 이름, 출생년도, 주식보유종목, 주식보유액. Includes Kim Dong-jun, Kim Heung, Kim Dong-won, etc.

돌림 형태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이들은 모두 허씨 집안의 3세대들이다.

◇SK·두산·KCC도 젊은 주식부자 배출=SK그룹 창업주인 최 회장에게 12억원에 달한다. 두산 박용만 부회장의 차남인 재원(21)씨도 보통수 기준으로 두산(4만3천120주), 삼화왕관(2천712주), 두산산업개발(35만5천478주) 등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가금액은 42억원이다. /연합뉴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Table with columns: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Lists various job openings.